

# ‘아쉬운 무승부’ 박진섭호 “100점 만점에 50점”



‘괴물’ 박진섭 감독의 프로 데뷔전은 역사나 쉽지 않았다. 고대하던 첫 승의 기쁨은 다음 경기에서 기약한 채 승점 1점으로 만족해야 했다.

박진섭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광주 FC가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개막전 FC안양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라커룸에서 대기 중이던 박 감독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아마추어 감독(개성고, 부산아이파크 U-18) 경험이 있었지만 프로 사령탑으로서의 데뷔전은 달랐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2부리그 10개팀 전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용병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올 시즌 광주에 대해서는 달린 수비를 보완하며 키플레이어로 임민혁을 꼽았다.

이날 광주의 포메이션은 4-1-4-1. 나상호를 원톱 공격수로 내세웠다. 경기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수비는 예전보다 압박이 더 강해졌다. 수비수들이 전원 하프라인까지 전진하며 공격적인 면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첫 승 달성에 실패했다.

광주는 이날 전후반 90분 동안 슈팅이 4차례에 그쳤다. 전후반 각각 2차례의 슈팅만 나왔다. 안양이 8차례의 슈팅(유효슈팅 4)을 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게다가 유효슈팅은 지우와 정영종의 슈팅 단 2차례 뿐이었다. 안양 골문을 위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록이다.

박 감독도 공격력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개막전이 라는 점 때문에 선수들에게 부담이 된 것 같다”며 “연습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거의 못보여줬다. 경기 종료 직전 5분만 제대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잔디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 바람도 불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며 “자신 있게 플레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감독이 직접 이날 경기에 내린 점수는 50점. 수비는 100점을 줄 수 있었지만 공격에서는 0점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광주가 얻은 소득도 있다.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이 광주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경기임에도 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박 감독은 지우에 대해 “기존훈련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좋은 경기를 했고,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마무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대화하고 연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족했던 공격부분은 오는 10일 성남전에서 선보일 세르비아 출신 공격수 부야와의 호흡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감독은 성남전에서 부야를 교체출전으로 경기를 뛰게 한 뒤 17일 부천전부터 본격 가동시킬 계획이다.

## 광주FC, 안양과 0-0... 승점 1점으로 출발 유효슈팅 2개 얻어붙은 공격력 회복 과제

그는 “나상호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는데 몸싸움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마지막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였다”고 말한 뒤 “부야와 나상호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지션 변경, 포메이션 변경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시즌 첫 경기를 맞아 긴장했고 이로 인해 몸이 무거웠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믿음을 보였다. 후반 들어 정영종을 빼고 김정환을 투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체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은 “영종이는 몸이 안 좋아서 교체하려고 했다. 임민혁이 후반 막판에 체력이 좋지 않았지만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고 지우도 잘하고 있어서 그 선수들을 믿고 교체 없이 끝까지 플레이를 맡겼다”고 말했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 김정환은 광주FC에서 첫 출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포항에 입단 후 광주FC에 임대로 합류한 김동현은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 김정환은 광주FC에서 첫 출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포항에 입단 후 광주FC에 임대로 합류한 김동현은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 김정환은 광주FC에서 첫 출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포항에 입단 후 광주FC에 임대로 합류한 김동현은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 김정환은 광주FC에서 첫 출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포항에 입단 후 광주FC에 임대로 합류한 김동현은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 김정환은 광주FC에서 첫 출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포항에 입단 후 광주FC에 임대로 합류한 김동현은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 소감으로는 “아직은 감독의 자리가 어색하다. 냉정하고 침착하려 했다”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음 경기를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우와 임민혁, 김동현, 김정환은 광주FC에서 첫 출장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포항에 입단 후 광주FC에 임대로 합류한 김동현은 프로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개막전 FC안양과의 경기에서 광주FC 지우가 안양 주현재를 제치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미셸 위 3년 8개월 만에 LPGA 투어 우승

### HSBC 월드챔피언십 17언더파 271타... 고진영 공동 6위

재미교포 미셸 위(29·한국어름위성미)가 3년 8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미셸 위는 4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코스(파72·6,71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경쟁자들을 1타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미셸 위는 2014년 6월 US 여자오픈 이후 3년 8개월 만에 투어 통산 5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4,000만원)다.

17번 홀까지 16언더파로 신지은(26), 다니엘 강, 넬리 코르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 미셸 위는 마지막 18번 홀(파4) 그린 밖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그대로 윗안으로 빨려 들어가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4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미셸위가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극적인 승부였다. 이날 최종라운드는 막판까지 네 명이 공동 선두에서 앞치락뒤치락했고 고진영(23),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1타 차로 따라붙는 등 우승 향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신지은이었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코르다나 다니엘 강 등은 좀처럼 16언더파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하지만 18번 홀에서 신지은이 보기를 적어내며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신지은은 두 번째 샷을 그린 앞 벙커 옆으로 보냈고, 그린 위로 올리려던 세 번째 샷이 짧아 파 퍼트까지 4~5m 거리가 남았다.

결국 파 퍼트에 실패한 신지은은 단독 선두에서 공동 1위로 내려앉은 채 먼저 경기를 마쳤다.

미셸 위는 두 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해 버디를 잡기가 어려워 보였지만 과감하게 퍼터로 굴린 공이 그대로 버디로 연결되면서 짜릿한 역전 우승에 환호했다.

미셸 위는 2014년 2승을 거둔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날 값진 5승째를 따냈다.

올해 LPGA 투어 신인 고진영은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KIA 타이거즈기 호남 중학교야구 개막

### 10개교 출전 오늘부터 무등야구장서 열전

제1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호남지역의 야구 유망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야구 발전의 밑거름을 조성하고, 야구를 통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 10개팀이 참가하며, 토너먼트 방식으

로 승부를 가릴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동성중, 무등중, 진흥중, 총장중 등 4개 팀, 전남에서는 여수중, 이수중, 화순중, 세지중, 영산중 등 5개팀, 그리고 전북에서 이범중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팀과 2,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을 시상하며, 참가하는 전체 팀에게는 야구용품을 증정한다. 특히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에 상품이 걸려 있어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예상된다. /최진화 기자

## KIA 2018시즌 멤버십 회원 모집

KIA 타이거즈가 5일부터 2018시즌 멤버십(어린이·성인)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와 성인 회원 모집은 구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회원들에게는 타이거즈슈어용시 상품 10% 할인, 선발투수 공지 및 경기 결과 SMS 발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회원은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고 가입비는 7만5,000원이다. 어린이 회

원들에게는 회원 카드와 함께, KIA 타이거즈 유니폼과 2017 우승 패치, 모자와 멤버십 배지, 호걸이인형, 응원막대기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회원은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고 가입비는 8만5,000원이다. 성인회원들에게는 회원 카드와 함께 기념품으로 2018시즌 팬북과 유니폼, 2017 우승 패치, 모자, 멤버십 머플러와 배지, 응원막대를 제공한다.

최진화 기자

## 손흥민 리그 9·10호 폭발... 2경기 연속 멀티 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 멀티 골을 터뜨리며 완벽하게 부활을 알렸다.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허더즈필드와 홈경기에서 왼쪽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전반 27분 선취골을 터뜨린 뒤 후반 9분 추가 골까지 넣었다.

그는 올 시즌 15호 골, 리그 10호 골 고지를 밟았다. 두 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 금지탑을 쌓았다. 골 장면은 환상적이었다. 그는 0-0으

로 맞선 전반 27분 역습 기회에서 팀 동료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을 돌파했다.

이후 빠른 스피드로 상대 페널티 지역을 침투했고,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만들었다.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제친 손흥민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9분엔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그는 역습 기회에서 왼쪽 측면을 빠르게 침투했다. 팀 동료 해리 케인이 오른쪽 크로스를 날리자 정확한 헤딩으로 공을 골문으로 밀어 넣었다.

흡결을 찾을 수 없는 플레이였다. 손흥민은 득점 장면 외에도 이날 인상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전반 4분 페널티 지역 앞에서 수비벽을 뚫는 모습이 특히 그랬다.

그는 여러 명의 수비수 사이로 돌파해 오른쪽 땅볼 크로스를 날리며 상대 수비진을 휘저었다.

전반 16분엔 페널티 지역 왼쪽 앞에서 직접 중거리 슈트를 시도했는데, 수비수를 맞고 나가 득점과 연결되진 못했다.

왼쪽 측면은 손흥민에게 높이터였다. 전반 37분엔 롱패스를 가슴 트래핑으로 받은 뒤 왼쪽 측면을 돌파했다. 상대 수비수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제친 슈팅을 시도했다.

최진화 기자

바깥 그물을 때리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회자할 만한 플레이였다.

토트넘은 이후 추가 득점 없이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기성용은 웨일스 스완지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홈경기에서 2선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전반 8분 팀의 선취골을 넣었다.

그는 상대 팀 페널티 지역 아크서를 앞에서 공을 잡은 뒤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슈트를 시도했다.

공은 낮게 깔려 상대 골문을 흔들었다. 스완지시티는 4-1로 이겼다. /연합뉴스

## 추신수 MLB 시범경기 첫 홈런 폭발

### 첫 멀티히트에 2경기 연속 안타 ‘감 잡았어’

‘추추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시범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앞선 4경기에서 7타수 1안타로 잠잠했던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안타를 터트리며 시범경기 타율을 0.300(10타수 3안타)으로 끌어 올렸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불을 뿜었다.

1회 초 선두타자 밀라이노 드실즈의 2루타로 득점권 기회를 잡은 추신수는 조니 쿠에토의 2구를 밀어쳐 왼쪽 담을 넘어가는 선제 투런포로 연결했다. /연합뉴스